

##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 타당화\*

### Validation of the Maternal Emotion Coaching Questionnaire for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임정하<sup>1</sup> 박성민<sup>2</sup>

JungHa Lim<sup>1</sup> Sungmin Park<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Maternal Emotion Coaching Questionnaire (MECQ, Lim et al., 2018) in order to measure emotion coaching in mothers of preschoolers.

**Methods:** A total of 316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Maternal emotion coaching was assessed by self-report and child emotion regulation ability was evaluated by the teacher. Data were analyzed with chi-square test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latent profile analysis, and F-test.

**Results:** Each item of the MECQ showed proper discriminative power. The MECQ and each subscale demonstrat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and split-half reliability.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was provid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five-factor model including maternal attention, awareness, acceptance, empathy, and guidance showed a good fit. Results of the latent profile analysis revealed three profiles of emotion coaching: excellent, good, and poor. Preschoolers with mothers in the poor coaching profile showed significantly lower emotion regulation ability compared to those in the excellent or good coaching profiles, which suggested discriminative validity of the MECQ.

**Conclusion/Implications:** The MECQ presents a reliable and valid tool to assess emotion coaching in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and can thus be effectively used for mothers of preschoolers.

**key words** maternal emotion coaching questionnaire, preschool children, scale validation, child emotion regulation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sup>1</sup> 제1저자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 <sup>2</sup>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박사과정 수료생  
(e-mail : psm5016@korea.ac.kr)

## I. 서론

유아기에는 개인의 정서조절능력이 영아기에 비해 보다 잘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는 이 시기에 유아 내부적으로 집행기능이 현저히 발달함으로써 억제 조절, 의식적 자기 성찰, 재평가 등과 같은 심리적 처리 과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Zelazo & Muller, 2002). 또한 외부적으로도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을 가르치고자 하는 양육자의 사회화 행동이 보다 뚜렷해지는 시기이다. 이 때 양육자와

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경험은 이후의 정서적 역량 발달에 기초가 된다(Goleman, 1995). 이처럼 유아기가 개인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작 단계임을 고려할 때, 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의 정서사회화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서사회화란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하는 다양한 양육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부모의 정서표현성, 부모-자녀 간 정서에 대한 대화가 그 주된 방식이 된다(Eisenberg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정서사회화의 일환으로 정서코칭(emotion coaching)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정서코칭이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자녀와의 의논, 조언을 포함하며, 나아가 정서에 대한 가르침이나 보다 복잡한 질적 구조화를 시사하기 때문이다(Gottman et al., 1996; Halberstadt, 1991).

양육자가 자녀를 사회화시키고자 하는 맥락에서 정서코칭이란 자녀가 정서를 표현할 때 양육자가 이를 수용하고 인정해 주며, 자녀가 특정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을 자녀로 하여금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교육의 기회가 되도록 활용하는 태도를 말한다(Gottman et al., 1997). 양육자는 정서코칭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며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어머니가 정서코칭을 잘 할수록 유아의 정서적 유능성(정보라, 2017)과 정서조절능력(Ellis et al., 2014)이 높았으며,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때 유아의 공감능력(신유림, 김윤수, 2018)과 사회적 능력(김주련, 송하나, 2021)도 우수한 경향이 있었다.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친사회적 리더십역시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세영 등, 2019). 또한 일상에서 정서코칭을 받은 자녀는 스트레스에 보다 잘 대처하며(한미림, 김경숙, 2018), 또래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았다(Gottman et al., 1996, 1997). 이들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어머니의 정서코칭이 유아의 정서적 능력을 비롯하여 전인적인 성장 및 발달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와 실천 분야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코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정서코칭 관련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부모교육 현장에서 부모의 정서코칭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코칭 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만하고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정서코칭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인 Gottman과 DeClaire(1997)는 정서코칭 과정에 다섯 가지 세부 요인, 즉 자녀의 정서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기, 자녀의 정서 상태를 알아차리고 파악하기, 자녀가 정서를 표현하도록 기다리고 자녀의 정서를 인정하기, 자녀가 경험하는 정서에 공감하기, 자녀가 정서를 잘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일차적으로는 양육자 자체의 태도와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아기 자녀나 학령기 혹은 청소년기 자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자녀가 정서를 잘 표현하고 조절하도록 지도하기의 경우는 자녀의 인지발달수준을 고려해 보다 적절한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을 다룬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정서코칭 과정에 포함되어야 구성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국외에서 개발된 정서관련 양육행동이나 정서코칭 평가도구 일부를 번안 또는 축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한미림과 김경숙(2018)은 어머니의 정서코칭을 알아보기 위해 Gottman과 남은영(2007)이 개발한 부모의 감정코칭

유형 척도의 일부를 사용한 바 있다. 이 때, 원 척도의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치형에 대한 문항들 중 감정코치형에 속한 23문항만을 이용해 유아교육전공 석·박사과정생들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몇몇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15문항을 선정해 정서코칭을 단일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다른 예로 이윤정과 임지영(2014)은 어머니의 정서지도를 평가하기 위해 Lagacé-Séguin과 Coplan(2005)의 어머니의 정서유형 질문지(Maternal Emotional Styles Questionnaire, MESQ) 중 정서지도영역의 7문항을 번안해 사용하였다. 하지만,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서코칭 연구가 보다 활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서코칭을 구성하는 핵심요인들로 세분화해 평가할 수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측정도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발된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임정하 등, 2018)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평가도구는 질문지 형식으로, 어머니가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또한 정서관심, 정서인식, 정서수용, 정서공감, 정서지도의 총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평가도구는 개발 시 문헌고찰과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66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5요인 26문항을 확정하였다. 이후 교차타당화 작업을 통해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평가도구에는 이론적으로 알려진 정서코칭의 핵심요소가 모두 포함되었고, 평가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도 국내의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표본을 대상으로 적절히 제시되어 있다. 유아기와 학령기, 이들 두 발달단계에서 양육자가 자녀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식이 달라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역량을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양육자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관심, 인식, 수용, 공감하는 태도는 자녀의 발달단계나 연령과 무관하게 정서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서를 지도하는 방식의 경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직접적 지원에서 간접적 지원으로 점차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코칭 평가도구(임정하 등, 2018)의 정서지도 문항의 경우, 본 연구자들이 검토한 결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정서지도 행동을 평가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평가도구는 어머니가 질문지의 문항을 읽고 직접 답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에도 높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임정하 등(2018)이 보고한 정서코칭 평가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다섯 가지 하위요인 중 문항 수가 각각 4문항에 그쳤던 정서수용 요인과 정서지도 요인의 신뢰도가 나머지 요인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점수의 범위나 평가도구의 길이 등은 신뢰도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해 점수의 범위를 넓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임정하 등(2018)이 평가도구의 최종문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포함된 정서수용 요인 한 문항(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과 정서지도 요인 두 문항(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도와준다; 아이가 슬픔을 느끼는 상황은 아이가 감정을 잘 조절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을 추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기존의 5요인 26문항 모델과 문항이 추가된 5요인 29문항 모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비교하여 보다 우수한 모델

로 평가도구의 문항을 확정하고자 한다.

나아가, 확정된 문항으로 정서코칭의 다섯 하위요인점수를 각 차원으로 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해 어머니들의 정서코칭을 유형화한 후, 이들 유형에 따라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데이터의 경험적 자료에 기반해 집단을 분류하는데 있어 높은 정확성과 안정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므로(민여준, 2015), 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표본의 특성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또한 주양육자의 정서코칭과 자녀의 정서적 능력이 밀접히 연관된다는 기존 연구들(Eisenberg et al., 1998 등)을 근거로 정서코칭 평가도구로 측정된 어머니의 정서코칭 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의 판별타당도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코칭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시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추후 부모교육 현장에서 활용해 정서관련 양육행동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식별함으로써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정서코칭 평가도구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정서코칭 평가도구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3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아는 159명(50.3%)이었고 여아는 157명(49.7%)이었다. 유아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3세가 99명(31.3%), 만 4세가 103명(32.6%), 만 5세가 114명(36.1%)이었다. 어머니의 연령대는 25-29세 4명(1.3%), 30-34세 44명(13.9%), 35-39세 151명(47.8%), 40-45세가 95명(30.1%), 45-49세 20명(6.3%), 50세 이상 2명(0.6%)으로 나타나 35세-45세가 주를 이루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172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 71명(22.5%), 고등학교 졸업 이하 43명(13.6%), 대학원 이상 30명(9.5%) 순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 1)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정서코칭 평가도구를 타당화하기 위해 임정하 등(2018)이 개발한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Maternal Emotion Coaching Questionnaire: MECQ)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총 26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다음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관심(5문항)은 자녀가 경험하는 정서에 관심을 가지며, 필요 시 도움을 주고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인식(7문항)은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 상태를 명확히 알아차리고, 행동의 기저에 있는 정서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수용(4문항)은 자녀가 자신의 정서 상태를 표현하도록 기다리며 선불리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공감(6문항)은 자녀가 자신의 정서 상태를 표현할 때, 언어적, 행동적으로 적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지도(4문항)는 자녀가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을 교육의 기회로 삼고, 자신의 정서를 구두로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코칭의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코칭을 긍정적이고 적절한 방향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도구 개발 시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Cronbach's  $\alpha$ 값은 전체 .92, 하위요인별로 정서관심 .77, 정서인식 .86, 정서수용 .69, 정서공감 .82, 정서지도 .63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서수용과 정서지도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Cronbach's  $\alpha$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가도구 개발 당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평가도구의 구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거되었던 정서수용 1문항, 정서지도 2문항을 추가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총 29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여 정서코칭 평가도구가 26문항으로 구성된 경우와 29문항으로 구성된 경우 각각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 결과를 비교하였다.

## 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와 Mayer(1996), Goleman(1995)의 연구를 기초로 이병래(1997)가 제작한 유아용 정서지능 척도 중 2개 하위요인인 자기정서조절능력 요인(8문항)과 타인정서조절능력 요인(9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유아보육현장에서 담임교사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전체 .92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11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협조를 받아 모집공고와 연구참여 설명문, 어머니용 질문지를 가정으로 전달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응답된 질문지를 어린이집으로 송부해 달라고 안내하였다. 어머니의 응답지가 회수된 유아들의 경우, 담임교사가 교사용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배부한 질문지 330부 중 327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질문지 11부를 제외한 나머지 316부(96.6%)를 실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과 응답에 협조해 준 교사와 연구에 참여해 준 어머니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 AMOS 26.0, Mplus 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문항과 하위요인별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문항별 응답빈도분포 상·하위 25%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와 반분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판별타당도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어머니의 정서코칭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으로 유형화한 후, 식별된 잠재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 기술통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 총 29개의 문항과 하위요인별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평가도구의 각 문항이 어머니의 정서코칭 수준을 잘 변별해 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증을 통해 문항변별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응답 총점분포의 상·하위 25% 집단 사이에 각 문항별 응답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고,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하였다(표 1 참고). 먼저, 정서코칭 평가도구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정서관심 요인( $M=4.28, SD=.49$ )이 가장 높았고, 정서인식 요인( $M=3.88, SD=.60$ )과 정서공감 요인( $M=3.84, SD=.59$ )이 그 뒤를 이었다. 정서지도 요인( $M=3.30, SD=.60$ )의 경우, 나머지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고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한 결과, 응답분포 상·하위 25% 집단에 따른 문항별 응답빈도의 차이는 29개 문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Cramer의 V계수는 .27에서 .60으로 나타났다.

표 1.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별도지수 ( $N=316$ )

문항	$M$	$SD$	$\chi^2$	변별도 지수
<b>정서관심 요인</b>	4.28	.49		
3 아이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는다.	4.53	.59	101.08***	.40
8 아이가 기분이 나빠도 내가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4.30	.79	45.66***	.27
13 아이의 감정에 관심이 있다.	4.43	.61	130.90***	.46

표 1. &lt;계속&gt;

	문항	<i>M</i>	<i>SD</i>	$\chi^2$	변별도 지수
18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노력한다.	4.07	.66	152.86***	.49
23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진지하게 귀를 기울인다.	4.06	.68	204.89***	.57
<b>정서인식 요인</b>		3.88	.60		
2	아이의 말투, 목소리 톤,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4.04	.76	166.09***	.51
7	아이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알아차린다.	3.64	.76	175.69***	.53
12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감정 신호(징후, 조짐)를 안다.	3.95	.72	181.75***	.54
17	아이의 말(대답, 구두, 표현)과 속마음이 다를 때 알아차릴 수 있다.	3.72	.82	141.30***	.47
22	아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슬퍼하거나 분노하고 있을 때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편이다.	3.97	.78	152.83***	.49
27	아이의 감정변화를 알아차린다.	4.09	.67	228.55***	.60
31	아이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이를 보면 금방 알아차린다.	3.75	.83	156.83***	.50
<b>정서수용 요인</b>		3.62	.53		
4	아이의 감정을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준다.	3.45	.87	90.25***	.38
9	아이의 부정적 감정을 비난하지 않는다.	3.50	.96	85.77***	.37
14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할 단어를 찾을 때까지 재촉하지 않는다.	3.74	.67	125.15***	.45
19	아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선불리 단정 짓지 않는다.	3.62	.68	88.50***	.37
24★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3.78	.78	193.19***	.55
<b>정서공감 요인</b>		3.84	.59		
1	(아이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아이에게 이전에 잘 했던 점을 이야기해주어 지금의 어려움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준다.	4.04	.70	132.49***	.46

표 1. <계속>

	문항	M	SD	$\chi^2$	변별도 지수
6	(아이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가 겪었던 유사한 경험에 대해 말해주어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3.52	.94	138.49***	.47
11	(아이가 문제를 경험할 때) 내가 경험했던 문제에 대해 말해주며 아이가 다양한 문제해결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3.48	.90	164.15***	.51
16	아이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응,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등의 말을 하며 들어준다.	4.16	.72	155.40***	.50
21	아이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4.09	.70	154.23***	.50
26	아이가 슬퍼할 때,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슬펐을 거야.”라고 이야기해준다.	3.76	.85	151.34***	.49
<b>정서지도 요인</b>		3.30	.60		
5	아이가 좋아하는 매개물(인형, 책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19	.86	112.98***	.42
10	아이가 감정을 정확한 명칭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할 때, 친숙한 것에 비유하여 말해보도록 격려한다. (예: 네 마음을 비로 표현하면 어떤 비야?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아? 소나기? 아니면 이슬비? 어떤 것과 비슷한 것 같아?)	3.00	.96	121.05***	.44
15	아이에게 감정을 다루는 다양한 전략들을 가르쳐준다. (예: 심호흡 등)	3.47	.86	121.53***	.44
20	아이가 화를 낼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3.08	.84	58.60***	.31
25★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 측면(성공가능성, 실현가능성, 효과 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도와준다.	3.45	.86	155.23***	.50
29★	아이가 슬픔을 느끼는 상황은 아이가 감정을 잘 조절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3.63	.84	144.07***	.48
<b>전체</b>		3.78	.48		

주. ★ 임정하 등(2018)의 26개 문항 외에 추가된 문항 (정서수용 24번, 정서지도 25번, 29번)

\*\*\*  $p < .001$ .

## 2.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의 신뢰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총 26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도구와 29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도구의 내적 합치도와 반분신뢰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26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도구에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정서코칭 전체 .93 하위요인별로는 .64~.90으로 나타났다. Spearman-Brown 공식을 이용해 반분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전체 문항 .91, 하위요인별로는 .60~.8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9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도구에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정서코칭 전체 .94 하위요인별로는 .71~.90으로 나타났다. Spearman-Brown 공식을 이용해 반분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전체 문항 .92, 하위요인별로는 .67~.88로 나타났다. 다른 하위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았던 정서수용과 정서지도 요인을 살펴보면, 문항 수를 추가하였을 때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13, .05가, 반분신뢰도에서도 .07, .10이 높아졌다. 즉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는 26문항일 때보다 29문항으로 평가했을 때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2.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 구성과 신뢰도 (N = 316)

하위요인	5요인 26문항			5요인 29문항		
	문항 수	Cronbach's $\alpha$	Split-half reliability	문항 수	Cronbach's $\alpha$	Split-half reliability
정서관심	5	.80	.73	5	.80	.73
정서인식	7	.90	.88	7	.90	.88
정서수용	4	.64	.60	5	.77	.67
정서공감	6	.82	.73	6	.82	.73
정서지도	4	.66	.66	6	.71	.76
정서코칭 문항 전체	26	.93	.91	29	.94	.92

### 3.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의 타당도

#### 1) 구성타당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5요인 26문항 모델과 5요인 29문항 모델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적 적합도 지수 중 IFI, TLI, CFI 값을, 절대적 적합도 지수 중 RMSEA 값을 살펴보았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5요인 26문항 모델에서 IFI는 .879, TLI는 .862, CFI는 .878, RMSEA는 .071로 나타났다. 5요인 29문항 모델에서 IFI는 .862, TLI는 .846, CFI는 .860, RMSEA는 .072로 나타났다.

표 3. 모델적합도 (N = 316)

모델	df	$\chi^2$	IFI	TLI	CFI	RMSEA
5요인 26문항	289	742.52***	.879	.862	.878	.071
5요인 29문항	367	971.78***	.862	.846	.860	.072

\*\*\* $p < .001$ .

일반적으로 IFI, TLI, CFI 값은 0과 1 사이이며, 대략 .90 이상이면 그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값을 평가할 때에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08이면 양호한 적합도, .08~.10이면 적합도가 보통인 것으로 평가된다(홍세희, 2000). 분석 결과, 5요인 26문항 모델과 29문항 모델 모두 상대적 적합도의 세 가지 지수가 .90에 가깝고, RMSEA 값이 .05~.08 사이이므로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라 볼 수 있다. 즉 정서코칭 평가도구 원 척도에서 3문항을 추가할 때 신뢰도는 높아지고 그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에 기존 26문항에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 측면(성공가능성, 실현가능성, 효과 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도와준다.”, “아이가 슬픔을 느끼는 상황은 아이가 감정을 잘 조절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의 3문항을 추가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의 문항을 29문항으로 확정하였다. 5요인 29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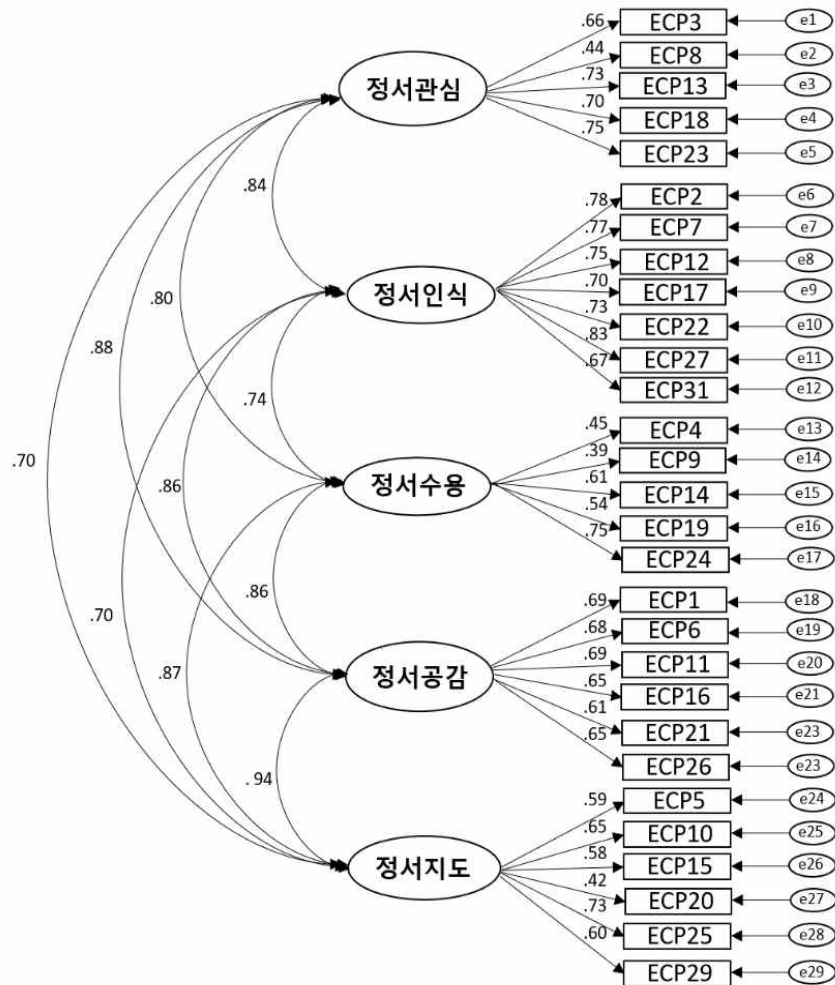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 구조모형

2) 판별타당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의 판별타당도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으로 어머니의 정서코칭을 유형화하고, 잠재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정서코칭을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3개일 때 Entropy 값이 .874로 분류의 질이 가장 높았다. LRT 와 BLRT 값에서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2개일 때보다 3개일 때 적합도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서코칭 유형은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3개인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유형별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표준화 점수인 z점수로 변환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잠재집단의 첫 번째 유형(20.7%)은 정서코칭을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는 우수형, 두 번째 유형은 보통형(54.4%), 세 번째 유형은 정서코칭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비형(24.9%)으로 명명하였다.

표 4.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모형적합도 지수 (N = 316)

k	df	AIC	BIC	Adjusted BIC	Entropy	LRT p	BLRT p	집단 내 분류비율(%)				
								1	2	3	4	5
2	16	2092.709	2152.801	2102.053	.871	<.001	<.001	35.8	64.2			
3	22	1876.309	1958.936	1889.157	.874	<.001	<.001	20.7	54.4	24.9		
4	28	1805.477	1910.638	1821.829	.856	.003	<.001	12.8	24.4	44.0	12.8	
5	34	1793.809	1921.504	1813.665	.866	.257	<.001	13.2	44.0	22.7	1.4	18.7

주. k = 잠재프로파일의 수, df = 자유도. AIC =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RT =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 =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s compared with a (k-1) class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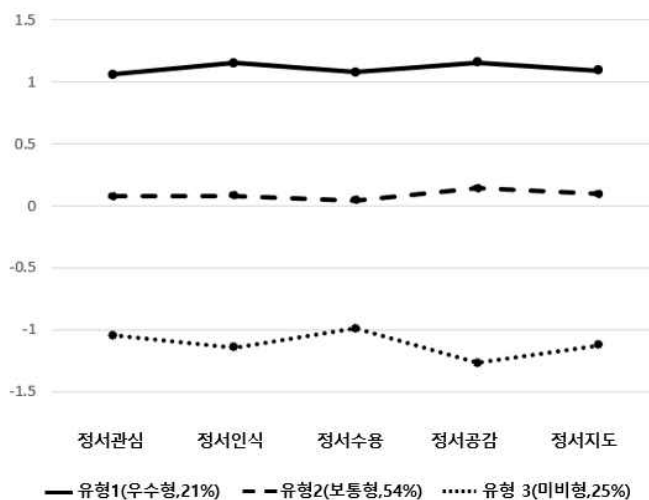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의 정서코칭 잠재집단 유형(z점수 변환)

다음으로, 정서코칭 잠재유형에 따라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 방식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코칭 유형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정서코칭 우수형 어머니의 자녀들은 정서조절능력( $M= 3.56, SD = .72$ )이 가장 높았고, 정서코칭 미비형 어머니의 자녀들은 정서조절능력( $M= 3.08, SD = .70$ )이 가장 낮았다. 정서코칭 유형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서코칭 미비형에 속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정서코칭 우수형이나 보통형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정서조절능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 11.81, p < .001$ ).

표 5. 어머니의 정서코칭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수준차이 (N = 316)

종속변수	잠재계층	평균	표준편차	F	p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정서코칭 우수형 <sup>a</sup>	3.56	.72	11.81	< .001
	정서코칭 보통형 <sup>a</sup>	3.52	.70		
	정서코칭 미비형 <sup>b</sup>	3.08	.70		

주. 유의수준 .05에서 같은 문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다른 문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 IV. 논의 및 결론

유아기는 개인의 정서능력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며, 긍정적 정서사회화의 일환인 양육자의 정서코칭은 유아의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정서코칭 평가도구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자 평가도구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정서코칭 평가도구를 이용해 수집한 응답치를 분석한 결과, 먼저, 정서관심, 정서인식, 정서수용, 정서공감, 정서지도로 구성된 다섯 개의 하위요인 중 정서관심 요인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정서지도 요인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즉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대체적으로 자녀가 경험하는 정서에 마음을 쓰며 도움을 주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에는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가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을 교육의 기회로 삼고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서지도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평균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가 슬픔을 느낄 때보다 화를 낼 때 정서를 지도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외에서도 자녀가 분노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가 심하면 분노에 대한 정서코칭이 덜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Wu et al., 2019). 가족과 또래 맥락에서 분노 발달에 관한 모델을 제시한 Debaryshe와 Fryxell(1998)에 따르

면 유아기에 부모로부터 분노에 대한 감성코칭을 받으면 이는 유아의 생리적 반응, 자기조절, 사회정보처리, 행동전략, 나아가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정서코칭 과정 중 정서지도의 측면에서 특히 자녀가 분노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정서코칭 평가도구의 문항별 상·하위집단 간 응답 변별도를 산출한 결과, 29개 문항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는 모든 문항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코칭 수준을 잘 변별해 내는 양호한 평가도구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서코칭 평가도구의 신뢰도는 5요인 26문항일 때보다 5요인 29문항일 때 높게 나타났다. 5요인 29문항으로 평가하였을 때, 내적 합치도와 반분 신뢰도 지표에서 모두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하위요인 중 정서인식 요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고, 정서공감 요인과 정서관심 요인도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수용 요인과 정서지도 요인 역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임정하 등, 2018)의 신뢰도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가 전체 문항 및 하위요인들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를 29문항으로 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대상으로 활용하였을 때에도 각 문항들이 해당 구인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서코칭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정서코칭 평가도구 구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요인 26문항 구조모형과 29문항 구조모형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코칭 평가도구 원 척도에서 정서수용 요인과 정서지도 요인에 총 3문항을 추가할 때 신뢰도는 높아지고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는 5요인 29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정서코칭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을 각 차원으로 3가지 잠재프로파일을 식별하였으며, 이를 정서코칭 우수형, 보통형, 미비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중 정서코칭 미비형에 속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정서코칭 우수형이나 보통형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정서조절능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정서코칭 우수형과 보통형 어머니의 자녀 간에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어머니의 정서코칭 외에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설명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양육참여(홍유정, 한세영, 2020), 부모의 유머스타일(오연경, 황혜신, 2019), 유아의 기질(박윤정, 최미경, 2019), 실행기능(강도연, 김희태, 2018), 사회적 기술(배율미, 조광현, 2017) 등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정서코칭 미비형 자녀들의 정서조절능력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것은 어머니가 정서코칭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때,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어머니의 반응이 비지지적일 때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들(강선주, 임선아, 2020; 이지영, 이강이, 2021)과 맥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정서코칭 평가도구의 판별타당도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5요인 29문항으로 구성된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코칭 수준을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코칭을 구성하는 요인에 있어 어머니 자신의 태도를 반영하는 자녀의 정서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용, 공감과는 달리 정서지도의 경우 자녀의 발달단계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지도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 발달단계나 자녀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화된 지도방식을 식별하고 그 효과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아버지가 자녀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어머니 못지않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정서코칭이 유아기 자녀의 정서사회화에 의미있게 기여한다는 증거를 제공한 국외의 연구(Gerhardt et al., 2020)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정서코칭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어머니의 정서코칭의 특성과 비슷하거나 차이가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버지 대상으로 평가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서코칭 과정의 핵심 구성요인들을 포함한 정서코칭 평가도구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타당화하였다는 점, 특히 어머니가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하여 유형화한 정서코칭 수준에 따라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타당도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후 본 평가도구가 유아의 정서사회화와 관련된 연구 분야 뿐 아니라 양육자의 정서코칭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의 응용 분야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도연, 김희태 (2018).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3(1), 259-279. <https://doi.org/10.20437/koacce23-1-10>
- 강선주, 임선아 (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23, 79-105. <https://doi.org/10.37918/kce.2020.07.123.79>
- 김주련, 송하나 (2021). 외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 및 사회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발달**, 34(2), 45-60.
- 민여준 (2015). **집단 분류의 통계적 방법 비교: 군집분석, 판별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윤정, 최미경 (2019).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5), 47-68. <https://doi.org/10.14698/jkce.2019.15.05.047>
- 배울미, 조광현 (2017).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21(1), 633-653.
- 신유림, 김윤수 (2018).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기초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와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6), 241-255.

- <https://doi.org/10.14698/jkce.2018.14.06.241>
- 오연경, 황혜신 (2019). 부모의 유머스타일이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0(1), 27-37. <https://doi.org/10.5723/kjcs.2019.40.1.27>
- 이병래 (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정, 임지영 (2014).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정서사회화 행동의 조절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3(6), 1141-1154. <https://doi.org/10.5934/kjhe.2014.23.6.1141>
- 이지영, 이강이 (202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2(1), 119-134. <https://doi.org/10.5723/kjcs.2021.42.1.119>
- 임정하, 강현지, 송지은 (2018). 어머니의 정서코칭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9(6), 1-14. <https://doi.org/10.5723/kjcs.2018.39.6.1>
- 정보라 (2017).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정서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 행동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림, 김경숙 (2018).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과 어머니의 감정코칭이 유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7(2), 287-302. <https://doi.org/10.17643/kjce.2018.27.2.16>
- 한세영, 조인영, 한아름 (2019).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사회적 힘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1), 1-14. <https://doi.org/10.14698/jkce.2019.15.01.001>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유정, 한세영 (2020).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와 양육참여 및 리더십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아동학회지**, 41(2), 103-115. <https://doi.org/10.5723/kjcs.2020.41.2.103>
- Debaryshe, B. D., & Fryxell, D. (1998).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ger: Family and peer contex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5(3), 205-216. [https://doi.org/10.1002/\(sici\)1520-6807\(199807\)35:3<205::aid-pits2>3.0.co;2-m](https://doi.org/10.1002/(sici)1520-6807(199807)35:3<205::aid-pits2>3.0.co;2-m)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0904\\_1](https://doi.org/10.1207/s15327965pli0904_1)
- Ellis, B. H., Alisic, E., Reiss, A., Dishion, T., & Fisher, P. A. (2014). Emotion regulation among preschoolers on a continuum of risk: The role of maternal emotion coach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6), 965-974. <https://doi.org/10.1007/s10826-013-9752-z>
- Gerhardt, M., Feng, X., Wu, Q., Hooper, E. G., Ku, S., & Chan, M. H.. (2020). A naturalistic study of parental emotion socialization: Unique contributions of fath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4(2), 204-214. <https://doi.org/10.1037/fam0000602>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Bantam Books.
- Gottman, J. M., & DeClaire, J. (1997). *Raising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 The heart of parenting*.

- Simon & Schuster.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https://doi.org/10.1037/0893-3200.10.3.243>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Routledge.
- Gottman, J. M. & 남은영 (2007).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코치*(엔터스 코리아 옮김). 한국경제신문. (원판 1997)
- Halberstadt, A. G. (1991). Toward an ecology of expressiveness: Family influences in particular and model in general. In R. S. Feldman & B. Rimé (Eds.), *Fundamentals of nonverbal behavior* (pp. 106-16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gacé-Séguin, D. G., & Coplan, R. J. (2005). Maternal emotional styles and child social adjustment: Assessment, correlates, outcomes and goodness of fit in early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14*(4), 613-636.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5.00320.x>
- Salovey, P., & Mayer, J. D. (1996).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https://doi.org/10.2190/DUGG-P24E-52WK-6CDG>
- Wu, Q., Feng, X., Hooper, E. G., Gerhardt, M., Ku, S., & Chan, M. H. (2019). Mother's emotion coaching and preschooler's emotionality: Moderation by maternal parenting stres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65*, 101066. <https://doi.org/10.1016/j.appdev.2019.101066>
- Zelazo, P. D., & Muller, U. (2002). The balance beam in the balance: Reflections on rules, relational complexity, and developmental proces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1*(4), 458-465. <https://doi.org/10.1006/jecp.2002.2667>

논문투고: 22.06.23

수정원고접수: 22.07.27

최종게재결정: 22.08.10